



의대증원 논의 의사만 참여?...방식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등으로 넓어졌던 논의가 다시 의정(醫政) 간으로 휴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 천58명으로 둑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의사 파업 등 갈등이 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숨 고르기를 하며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협의가 구체적으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의사단체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의대 증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복지부 "환자·전문가도 참여하는 '보정심'서 논의 해야"

의협은 "정부와 의협, 양자가 논의해야"…직능단체와 정원 협의는 '의대'뿐

"의사만 결정과정 참여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나"…이르면 내주 논의 시작 전망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협과의 협의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데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의의 틀을 보정심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말 보정심 산하에 의사 인력 확대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전문위에는 복지부, 교육부, 의대 교수, 국책 연구소 연구위원, 의사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강민구 정책자문위원도 위원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면서도 보정심을 의대 증원 논의의 핵심 틀로 활

용할 계획이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에 가져가면 안 된다. 의료계와 협의한다고 했으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보정심에서만 논의한다면 의협을 폐신하는 셈"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보정심에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골라서 (위원으로) 넣은 것"이라며 "의협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의료계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만큼 국립 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의료계 원로 등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중시하

면서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더 넓은 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YTN에 출연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료 수요자와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료계, 의료 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룬 바탕 위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만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각각 개최할 방침이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내달 2일로 예정돼있지만, 개최를 앞당길 생각이다.

보정심의 경우 지난 17일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만간 보정심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송원기 기자

"액상대마, 합법적"...홍익대 곳곳에 마약 광고 의심 카드

대학 측, 학생들에게 주의 공지하고 경찰 신고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래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한국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 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조령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껌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앞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 최현우 기자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협치회담' 제안...“국민 위한 상생정치 하자”

“형식·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이복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브를 거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민생 관련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 임희철 기자

S-OIL

친환경 에너지 화학의 미래를 향해

더 멀리
봅니다
더 높이
깁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투자 로드맵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신사업 포트폴리오까지
에쓰-오일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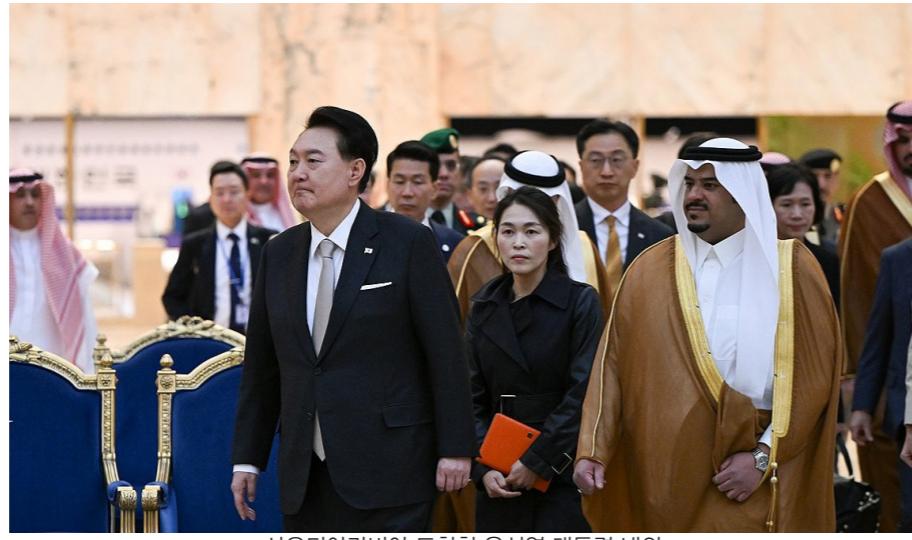
“尹대통령, 우리 복합위기 중동붐 통해 해결책 찾을수있다 생각”

대통령실 “한국, 사우디 포스트 오일 시대의 최적 파트너 될 것”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과 직면한 복합위기는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중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년 전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체를 독려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올해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50주년으로서 기업들의 전폭적인 중동 진출은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 수석은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40조원 사업 규모의 26개 대형 투자협약으로 제2의 중동 특수가 열렸다”며 “또 총투자비 14조원의 사항 프로젝트로 경제협력의 새 지평이 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

디지털 과학기술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서, 일명 첨단 산업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또 “사우디는 현재 국가 전환 비전인 2030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로 원전, 친환경에너지, 디지털, AI(인공지능)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에너지 건설을 넘어서 수소, IT,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의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만나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양국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정은 결국 모두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1천년 전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린 아랍에서 이번 사우디 순방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뛸 운동장 넓히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영풍제지 시세조종, 100여개 계좌로 11개월간 주가 12배 올렸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영풍제지 주가 시세조종에는 100여개 이상의 혐의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꾼들은 ‘라데연 사태’와 마찬

가지로 다수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시세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무려 12배 이상 끌어올렸으나 금융당국의 데이터 분석과 자금 추적에 결국 꼬리를 밟았다.

22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영풍제지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처음으로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라데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후 금감원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른바 라데연 사태는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동원된 다수의 계좌를 이용, 거래량이 적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해 주가가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시세조종 기간이 길고 일일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기존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벗어났다.

이에 라데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결국 이를 통해 6월 네이버 주식카페 비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의 시세조종 사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후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 김성훈 기자

이재명, 내일 국회 컴백…‘통합-민생’ 투트랙 행보 예고

단일대오 재정비 주력…‘가결파 5인방’ 징계청원 보류 관측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하고, 밖으로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당 체제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당무 복귀 후 첫 과제로 꼽혀 온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징계 청원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가장 주목된다.

징계 청원에는 지도부 답변 요건인 5 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간 최고위원들은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을 미루며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렸다.

이와 별개로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해당(害黨)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대표는 당내 분열은 총선 필패로 인식하

고 있다”며 “징계청원 처리는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친명계 내에서도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반대파 징계는 당내 분분만 야기할 것이란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대외 메시지 핵심은 단연 ‘민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 역시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여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국정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도 깔려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대로 ‘현장 최고위원 회의’ 등 민생 현장을 도는 일정도 차츰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간헐적으로 진행해 온 이른바 ‘민생 경청투어’도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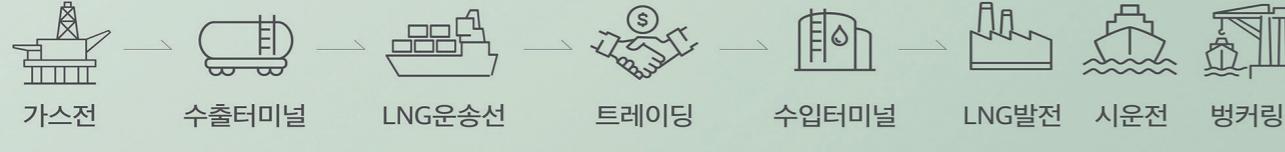
/ 남희찬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밀바탕되는 전문가위 보고서, 구체적 제안 없어…시나리오만 24개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위원장(오른쪽) 너머로 공적연금 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

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돼 왔다. 다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두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 개혁안의 밀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 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39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 대신 ‘행간을 읽어달라’는 당부만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것도 정부가 ‘숫자’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은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종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구체안을 담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야 속도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 김성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자에게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엔 ▲ 신소재 개발 및 제조 ▲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아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 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서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

/ 서정미 기자

KOMIR,
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품다

“충북 광천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준공지”

• KOMIR 탄소중립
- 탄소흡입 산림조성
- 광산 탄소저감시설 지원

• KOMIR 동반성장
- 중소광산 기술고용지원 및 성과공유

• KOMIR Safety
- 광산안전컨설팅
- 안전시설지원

• KOMIR 뉴딜
- 산림자원 등 활용
- 도시재생 사업

소 런피스킨병 확진 5건 추가…사흘새 10건으로 늘어

충남 서산 농장서 3건·충남 태안과 경기 평택서 각 1건



경기와 충남 소재 축산농장 모두 다섯 곳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국내 런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사흘 만에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 세 곳과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젖소농장 한 곳, 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한우농장 한 곳 등 모두 다섯 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 세 곳과 경기 평택시 소재 젖소농장은 모두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중수본은 런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다.

또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들은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한다.

농장 다섯 곳에서 기르는 소는 모두 300마리 정도다.

/ 흥민 기자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 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

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인 메트릭스, 한국갤럽, 네스트리서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리,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결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

/ 곽현중 기자

與 “이재명 복귀” 민주당도 ‘민생 최우선’ 함께 하길 기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민심 여과 없이 전달”



박정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부터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부디 국민의힘의 ‘민생 최우선 행보’에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21대 국회가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거듭 가슴에 새길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확실한 변화, 내실 있는 변화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공해”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며 “정치 혐오症 현수막 철거를 시작했고,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

한 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성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도 정리해 정책 중심 정당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유영 기자

민주 “김승희 사표 수리, 엄중한 대응 아닌 은폐 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재이송에 “없던 증거 만들 건가”



김승희 대통령실 의견비서관 사퇴

등한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준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 담수사를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강압 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 검사에 대해 ‘증언 오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월 사건을 맡은 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혼신 증인인 건설업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2심까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 검사가 결국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증언 오염” 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인가”라며 “더 세밀한 조사와 증거를 찾으라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10월 18일 국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허위로 있다.

달리는 버스에서 욕설·몸싸움

순천시의원들 ‘물의’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버스에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남권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버스)를 타고 단체로 상경했다.

버스에서 A 의원이 “국회 앞에서 지역 위원장(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삽발식이 있으니 격려자 국회에 들른 뒤 용산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 재직의원 정수는 총 25명이며 민주당 20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 윤희찬 기자

“정치 혐오 조장” 난립한 현수막 철거는 위법?…해법 마련 절실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민원 급증…지자체별 철거 조례 있따라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폭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강제 현수막 철거’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조례가 상位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서로 간 갈등이 빚어져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불편’, ‘안전 위협’…민원 급증에 참다못해 철거 나선 지자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부터다.

문제의 법 조항은 제8조 8항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당 현수막 정비를 계속해온 인천시는 대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례 위반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역으로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7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원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를 ‘지정 계시대’로 한정하고 계시 개수 또한 ‘공지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의회도 지난달 25일 정당별로 혐오·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만 계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 이철승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鹦生 금융파트너

**“요즘 탈나가는 투자전략 주시고요
‘반도체는 더블로 주세요’**

바이오 **AI** **2차전지** **반도체**

ETF, 그 다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내 맘대로 넣고 빼고! 스마트한 주식 투자

투자를 뛰어넘기 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저축 기능 범위, 활용 범위, 신용 등등에 0.12%이며 기타 자세한 조건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기관 시수수료(내국인 계좌) ITS(홈페이지 0.015%) 모바일 전송수수료(국내 주식 기관 시수수료(내국인 계좌) ITS(홈페이지 0.05%) 모바일 전송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투자는 투자자 분수에 맞춰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등록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세금, 기타 거래 관련 비용 등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KB증권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강화 추진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범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활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재 기자

'18명 사상' 낚시어선 왜 뒤집혔나…예인선 '와이어'에 걸린듯

어민들 "사고 어선이 예인선-부선 사이 와이어에 걸렸을 것" 추정



어민들 "사고 어선이 예인선-부선 사이 와이어에 걸렸을 것" 추정

18명의 사상자(4명 사망·14명 부상)가 발생한 전북 부안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쏟고 있다.

22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동 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급 낚시어선 A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크게 부상한 전복 부안 어선은 당시 예인선과 부선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에 걸렸다"고 신고했다. 낚싯배가 예인선과 부딪

힌 후 뒤집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지역 어촌계와 선장들은 낚시어선 A호가 뒤집힌 원인으로 예인선과 부선 사이에 걸려온 와이어에 걸렸다는 추정이다.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추정이 제각각 달라 현재로서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사고 어선이 와이어에 걸리거나, 뒤따라오던 부선 혹은 예인선과 충돌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며 "선장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도 고소**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22일 경찰



의류업체 A사는 현대홈쇼핑에서 신상품으로 판매된 제품이 실제로는 2021년에 제작된 재고품이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라벨같이' 흔적이 남아있는 제품, 오른쪽은 제조 연월이 '2021년 4월'이라고 기재된 제품

유명홈쇼핑서 산 신상의류…알고보니

2021년 만들고 ‘라벨같이’

국내 유명홈쇼핑에서 제조 연월이 조작돼 '라벨같이'가 이뤄진 의류 제품이 대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송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블라우스 제품 3천 300여개 세트를 판매했다.

정에서 제품이 마치 올해 제작된 것처럼 제조 연월을 바꾸는 일명 '라벨같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 배송된 일부 제품에는 원래 부착됐던 라벨을 뜯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것

3장씩 3천300여개 세트 팔려

현대홈쇼핑 “구매 고객에 사과·환불 조치”

블라우스 3벌이 1개 세트로 중간에 할인 과정을 거쳐 4만~5만원대에 판매돼 총 1억5천여만원 어치의 주문이 이뤄졌다. 이 제품은 올해 7월 생산됐다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021년 제작 상품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고소장 관련해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 한지웅 기자

으로 전해졌다.

현대홈쇼핑은 제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이달 6일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객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고 반품·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20일 즈음에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한 품질 관리로 다수의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데 이어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고객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지 않고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구매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게 신속하게 반품·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상품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희정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World Expo 2030
Candidate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OTRA가 응원합니다!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가자 생명줄 라파 통행로, 다시 닫혀…오늘 2차 반입 가능성도”



21일(현지시간)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구호 물자 수송 트럭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 기구 관계자 “검사 시스템 등 논의중”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열렸던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가 다시 닫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다만 유엔 기구 관계자는 22일 2차 구호품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히며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1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통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2주 만에 처음 개방됐다. 이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보복 공습을 이어간 아래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자지구 내에서 물과 식량, 의약품, 연료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라파 통행로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구호품을 반출할 수 있는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구호품이 가자지구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

에 동의한 이후 라파 국경 검문소 앞에는 세계 각국과 국제단체에서 보낸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1차 반입 물량은 트럭 20대분으로, 연료를 제외한 물과 식량, 의약품 등 구호품이다. 전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계기로 1차로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 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에 조건부로 합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트럭 20대분의 구호품은 가자 주민이 필요한 물량에 못 미친다면서 훨씬 더 많은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날

日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반출 난관 봉착…“계획 바꿔야 할 수도”

원자로 안팎 있는 구조물서 퇴적물 확인…“로봇 개발하고도 사용 못할 우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사고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반출 작업이 준비 과정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 잔해를 끼내기 위해 원자로 격납용기 안팎을 연결하는 지름 약 55cm의 원통형 구조물을 덮개를 열었으나, 안쪽이 회색 퇴적물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퇴적물은 원통형 구조물 안에 있던 케이블 등이 사고에 따른 고열로 녹으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전력은 올해 하반기에 핵연료 잔해 반출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로봇 팔’을 길이가 약 2m인 원통형 구조물에 넣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로봇 팔은 일본과 영국 기업이 2017년 4월부터 함께 개발했으며, 최장 22m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원통형 구조물에 넣으면 3cm의 간격만 남을 정도로 커서 퇴적물이 있으면 투입이 불가능하다.

도쿄전력은 일단 연말까지 고압의 물을 이용해 퇴적물을 밀어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봉을 낚싯대처럼 활용해 핵연료 잔해를 추출한다는 대안도 수립했다.



호주 앤버니지 총리, ‘훈풍 국면’ 중국 내달 4일 방문

앤서니 앤버니지 호주 총리가 내달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호주 총리는 7년 만에 방중하는 것으로, 양국관계에 걸림돌이 돼온 무역문제 등이 해결되는 국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앤버니지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인 중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그는 “우리(호주와 중국)가 포도주를

비롯한 호주 생산품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앤버니지 총리의 이번 방중은 호주 총리로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과 호주는 대규모 무역으로 끈끈한 관계였지만, 보수 성향인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집권기(2018.8~2022.5)에 수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중국 경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가입하고, 코로나19 기원을 찾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호주와 중국)가 포도주를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는 한때 단교 직전까지 길 정도로 악화했다. 경제 면에서도 호주는 2018년 당시 노델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

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보복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호주 노동당 정권이 출범한 뒤 무역 부문 등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 신지호 기자

“구호품의 지속적인 이동을 위해 라파 국경을 계속 개방할 것을 모든 당사자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은 22일 가자지구로 2차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1차 구호품이 가자지구에 반입된 몇시간 뒤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일 또 하나의 수송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오후 들었다”면서 “우리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현재 협상 중인 2차 반입 물량은 어쩌면 1차분보다 더 많은 트럭 20~30대분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가는 구호품에 공백이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은 가자지구 내 필수적인 수요를 맞추려면 매일 100대의 구호품 트럭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구호품 검사 시스템에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국 정부 기관이 이 구호품 검사에 관여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간단한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1차 구호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료의 사용을 주제로 허락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정영찬 기자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AGM-158 JASSM

대만, 中무력 침공 대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구매 계획 밝혀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의 구매 계획을 밝혔다.

22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비대칭작전 능력 개발’ 관련 보고서에서 중증 저지라는 대만 방위작전의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이같이 공식화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군이 ‘방위작전’ 지침에 따라 ‘사거리 확장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과 신속 기동 및 원점 정밀 타격이 가능한 부서의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기동포병로 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구매를 통해 장거리 화력 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사정 278km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AGM-84H(슬랩이알), AGM-88B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HARM), 통합 원거리 무기(JSW)인 AGM-154C 활강 폭탄, 자폭형 무인기(드론) ‘젠상’(劍翔), 최

대사거리 1천200km의 ‘송펑-2E’ 미사일 개량형인 송성 순항미사일, 집속탄 미사일인 완전탄(萬劍彈) 등을 통해 적의 작전 중심과 핵심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거리 확장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이 사거리 370km의 AGM-158 또는 사정 1천km에 달하는 AGM-158B JASSM-ER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만군 측은 보고서에 언급된 미사일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다고 대만언론들이 전했다.

한 전문가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DSCA)이 지난 8월 일본에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AGM-158B/B-2 JASSM-ER)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AGM-158를 대만에 대한 차기 무기 판매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 이 높다고 풀이했다.

/ 조석규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롭게

Shinhan

자식들 다ansom 없이 상속은 잘 될까?
내가 없어도 아내를 끌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눈에 밟히는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명예로운 인생
**신한으로
선택하다**
신한 S Life Care 유연대용신탁

복잡하고 불안한 유산상속
신한 S Life Care 유연대용신탁으로
내 뜻대로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누리세요

SOL 상담신청하기

내 자산 내 뜻대로 명예롭게 상속하는 신한 S Life Care 유연대용신탁

내 뜻대로 상속설계
본인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상속설계

간편한 상속 절차
유연한 작성에 따른 공동 및 복잡한 상속 절차 생략

고객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신한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분석 및 재산관리

믿음직한 상속 집행
신한은행이라 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상속 집행

SOL 상담신청하기

QR Code

더나은 내暮らし 위한 동행 신한은행



NH농협금융

오늘 나는
특별한 공부를 했습니다

용돈을 잘 쓰는 방법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궁금증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나의 세상을 키워주는 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

청소년·다문화가정·노인 등 누구나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은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과 NH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식 이론 교육 | 은행직업체험 | 신비한 금고체험 | 금융사기예방교육 | 핀테크 체험 |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리스크 관리 마비됐나'…주가조작 세력 '놀이터' 된 키움증권

증거금률 40%로 방치…이미 100%로 올린 주요 증권사와 대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종목 증거금률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을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용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한다. 또 해당 모범규준을 근거로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성,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증권사가 신용용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채권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근본적으로 회사의 기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투자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

키움증권 역시 관련 본부 안에 위험 종목을 골라내고 증거금률을 산정하는 심사부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

스를 활용한 '라더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 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었다.

이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작전'이 의

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가 알려지자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정도 되는 대형사가 왜 영풍제지 같은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키움증권 내부도 발칵 뒤집혔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천 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 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더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아래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송진영 기자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총 1천608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천608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80호, 그 외 지역이 1천128호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 홍명석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사우디 가는 네이버, 韓 IT솔루션 중동 첫 수출 신호탄?

채선주 대표 경제사절단 참가…사우디 측 사옥 방문만 9번

오는 26일까지 4박 6일간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비테크' 네이버가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미래도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그간 사우디 측과 긴밀한 접촉을 지속해온 네이버가 IT 설루션 중동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채선주 네이버 ESG(환경·사회·기업지배)·대외정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 동행한다.

채 대표가 작년 11월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 일원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IT 기술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와 사우디 간 교류는 지속됐다.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은 작년 11월 말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빌딩' 네이버 1784를 처음 방문했다. 이후 암둘라 알스와하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일행의 최근 방문까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네이버 1784 방문만 9차례에 달한다.

지난 3월에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투자부와 사우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22일(현지 시각) 오전 진행될 예정인 한·사우디 기업 간 MOU 체결식에서 한발 더 나간 성과가 나올 가능성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체결식에는 양국 각각 약 50명의 정부 인사와 기업인이 참석하며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양국 기업과 기관 간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투자부와 국가 디지털전환 업무협약

채 대표 외에 네이버랩스 관계자도 같은 날 열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 패널 토론에 삼성물산[028260] 관계자와 함께 한국 측 패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 측은 미래 도시를 주제로 발표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화된 시스템이 도시의 인프라로 작동하는 미래. 이를 구현해 좋은 네이버의 사옥 1784 등을 설명한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대규모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설루션 '아크아이(ARC eye)'도 소개한다.

사우디 측 패널로는 유적지 신도시 개발 사업인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의 제리 인제릴로 최고경영자(CEO)와 5천억 달러(약 680조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에너지 대기업 ACWA 파워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네옴시티와 같은 사우디 신도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 최초로 중동 주요국에 IT 설루션을 수출하는 사례가 된다. 채 대표가 3월 사우디 측과 체결한

MOU가 본계약으로 연결되면 네이버는 사우디 도시 단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해 AI·로봇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설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제공할 검색포털·배달앱 통합 플랫폼 '슈퍼 앱(가칭)'도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AI) 하이퍼로드 등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네이버가 주력인 포털 관련 서비스를 넘어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는 것이 되는 것은 물론, IT 기술에 관심이 높은 카타르 등 다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IC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 측과 MOU를 체결한 상태여서 순방 때 구체적인 성과를 안아 올 수 있을 것"이라며 "SW라 조단위 규모 수주는 어렵겠지만 건설사들과 손잡으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채형민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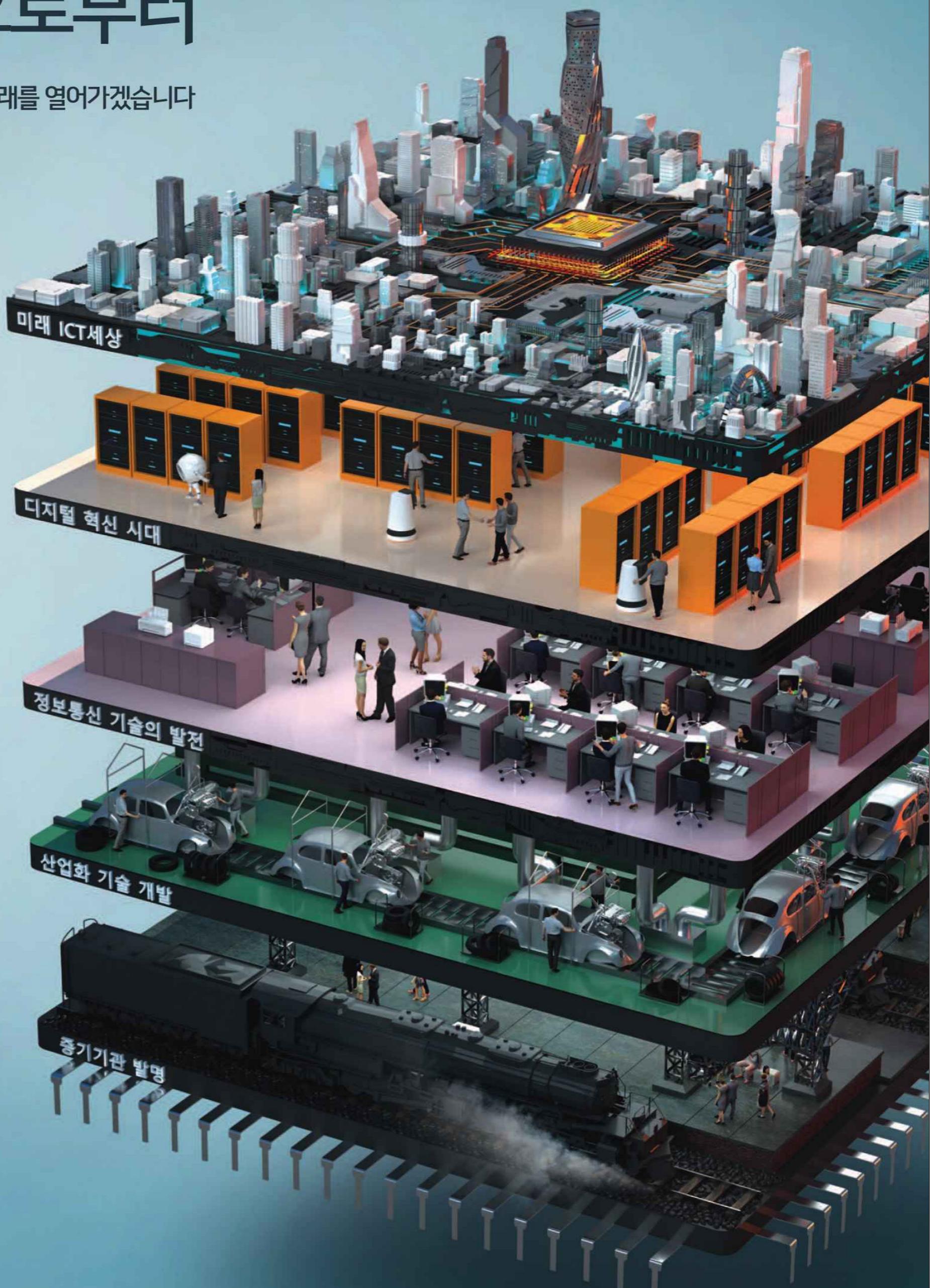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WAVE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 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 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퍼플섬 찾은 유인촌 “작은 변화의 힘…지역 특성 살리는 것 중요”

전남 신안군 ‘2023 문화의 달’ 개막식 참석…“최고의 섬문화로 거듭나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전남 신안군 퍼플섬을 방문해 섬을 둘러보고 있다.

“색을 하나 칠했다고 관광객이 이렇게 오는 게 신기해요. 작은 것 하나가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1일 ‘퍼플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박지도로 향하는 해상 목교를 건너며 “쉽지 않은 까다로운 색인데 어떻게 보라색을 생각했을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퍼플섬은 신안군 1천25개 섬 가운데 나란히 자리한 박지도와 반월도 두 개의 섬을 일컫는다. 안좌도 선착장에서 두 섬이 1천462m 길이의 ‘퍼플교’로 이어져 드넓은 바다와 갯벌 위를 걷는 느낌을 준다.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선착장 일대부터 주위는 마치 보라색이 상징인 ‘BTS 월드’에 온 것처럼 온통 보랏빛이었다. 집 지붕과 판매 상품은 물론 관광객들 드레스코드도 보라색이었다. 이 섬은 옛이나 모자, 가방 등에 보라색 물건을 지니면 입장료(5천원)가 무료이다.

유 장관은 전날 광주 일정을 마치고 신안군 자온도에서 열리는 ‘문화의 달’ 개막 행사에 참여하고자 이 일정을 찾았다.

보라색 재킷을 입은 유 장관이 퍼플교를 건너는 동안 그를 알아본 관광객들이 밤을 떼기 무섭게 사진 요청을 했다. 유 장관은 “어디서 오셨나?”고 친근하게 손을 잡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동행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섬을 ‘1004섬’으로 브랜드화하고, 각 섬에 색을 입히며 이곳을 보라색 성지로 조성했다.

박 군수는 “다리가 생긴 뒤에도 관광객이 0명이었는데 보라색 다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며 “홍콩 잡지와 미국, 독일, 일본 방송에 소개돼 한국의 핫한 관광지가 됐다. 올해 관광객만 4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50만명을 넘기면 예약제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군수님이 지역민의 특성을 살린 것처럼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변화가 있다”며 “각 지역마다의 오랜 삶의 방식을 잘 캐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 많은 걸 개발해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보로 도착한 박지도는 보라색 아스타 꽃 3천만 송이가 만발해 온통 보랏빛이었다. 이곳에서는 1년에 4번 꽃

축제가 열린다. 유 장관은 박 군수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둘러봤다.

퍼플섬 방문에 앞서선 암태도 선착장에서 요트를 타고 일대 관광 지역을 살펴보기도 했다.

유 장관은 요트에서 “섬과 바다의 여러 환경으로 봄선 그리스 산토리니 등에 뭇지않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감탄했다.

유 장관은 이후 자운도로 이동해 문화의 달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정부는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 전국을 순회하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섬, 문화 다양성의 보고’이다.

유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 자전거와 요트를 타고 퍼플 다리를 걸어 전기자전거도 타며 섬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군수님이 이 섬을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술이 꽃 피우는 문화 다양성이 존재하는 섬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대도에 9개 설치 작품을 설치할 ‘빛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 작가를 소개하며 “터렐 작가 작품이 설치된다면 세계의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 신안이 문화로 꽃 피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섬 문화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 만난 터렐 작가는 “많은 예술가가 빛을 이용하는데 내 작업은 빛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빛 자체가 주는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섬에서의 작업에 대해선 “한국 전체가 한반도여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며 “섬은 독립된 공간이고 배를 타고 물길을 느끼며 가는 여행이 중요하다. 스스로 빛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는 물은 내게 특별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 이송현 기자



영화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 스틸컷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사흘째

영화·공연·체험 ‘풍성’

국내 유일 국제산악영화 축제인 ‘제8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22일 다양

한 영화와 공연, 체험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개막 사흘째인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 장·단편 영화 22편을 상영한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에서는 오후 1시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한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를 상영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워프 시네마에서는 2019년 개봉해 흥행한 한국 영화 ‘엑시트’가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가수 이승환의 무대에 올라 직접 영화 OST 등을 50분간 들려준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마련된 태화강 시네마에서는 오후 7시 퇴근길 담벼락에 적힌 시를 통해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영화 ‘가정동’ 상영 후에는 가수 적재가 40분간 공연을 펼친다.

/ 강진수 기자

소방·군·경찰 ‘특수목적견’ 한자리…23~24일 합동훈련



광주 서구 확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보름째인 지난 25일 매출자(실종자 추정)가 발견된 27층에서 구조대원과 인명구조견이 수색을 하고 있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특수목적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훈련을 벌인다.

소방청은 23~24일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전남 화순군 일대

에서 지진 등 특수 재난 사고에 대비한 ‘호남권역 특수목적견 합동 훈련’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과, 군, 경찰 등 10개 기관에서 활동해온 특수목적견 16두가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 특수목적견을 훈련해온 핸들러 27명도 함께 한다.

합동 훈련은 건물 붕괴 및 산악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공동 수색에 대비해 기관별 특수목적견 운용기법의 차이를 공유하고, 협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특수목적견 훈련기법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중심으로 ▲ 사역견 분야 전문가 강의 ▲ 기관별 수색 기법 시연 및 실전수색 ▲ 재난현장 공동 대응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김창수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 경찰 등의 특수목적견 특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재난사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 및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곽지훈 기자

막바지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람객 900만명 돌파



이달 말 폐막을 앞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90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누적 관람객이 9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 목표치인 80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15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더 끌어모았다. 정원박람회는 올해 4월 1일 개장하고

울산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뭉친다…29일 세계문화축제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큰 장이 울산에서 열린다.

HD현대중공업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HD현대와 함께하는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식전 행사는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 및 퍼포먼스, 초청 공연, 외국인 근로자 재능 경연대회, 국가별 민속공연 등 순으로 열린다.

외국인 재능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HD 갓 텔런트’는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춤과 노래 등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순서다.

국가별 민속공연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세계 각국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인다.

세계문화체험부스, 먹거리존, 포토존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 오천혁 기자

time to WE:SH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KB금융그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국민 WE:SH All 카드 인화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경용(VISA) 2만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5천원 ■ KB국민 Out-WESH 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경용(Mastercard)) 1만5천원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경용(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경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세이자율: 외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있는 경우 아울러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더불어 일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시점의 일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을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구하의 개인신용평가를 하루일정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 기준에 부작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별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치른다.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들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금융위원회 심의 ville 제2023-C2b-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

SAMSUNG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 SPOKE 키친



가전을 나답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맞춤화된 서비스 *SmartThings Cooking 사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결 필요, SmartThings 앱의 연결 시 인터넷과 Wi-Fi 기능이 커져 있어야 함 *SmartThings 앱을 통해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Android OS 5.0 이상 지원) *해당 내용은 SW 업그레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설계 조치 시 사용 환경,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이 달라지거나 조리 도구가 필요할 수 있을 *죽센서, 전용 용기(냄비) 혹은 가스관에 맞는 설비 구입 필요 *설비 사용 가능: 용기온도 100°C, 용기내장 스텐레스 사각망면*높이 20~10 cm (수건 용기 / 세정고장 용기) ~ 20 cm (수건 용기 / 세정고장 용기) *설비는 서비스에서 구매 가능하며 2023년 5월 기준 148,000원(기본)은 추가 번역 가능 *큐커 - 스캔제작 *서비스 간편히 일기록과 함께하여 이용 가능하다. 수후 각 식품사를 해주는 확대 및 번역할 수 있는 큐커 조리기 27개 / 맛집 14개 / 힐링 14개 / 배민 14개 / 대상 25개 / 오후기 16개 / 투수원 24개 / 유통 14개 (22.4kg 기준) *인식스캔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은 탭인 확인이 필요 *AI 맞춤 세팅 *AI 맞춤 세팅 국내 40가지로 기초 한국어로 지원되는 AI 맞춤 세팅 *AI 맞춤 세팅은 고스 강행을 통해 가능 *냉장고 - 냉장사진제작 *보관 기간은 차지하는데 따른 것으로 속도로 산산하게 걸려갈 수 있는 관정입니다. 실제 속도로의 유통기한과 다른 수 있음 *Wi-Fi 연결 + 상당 계정의 연동된 경우에 사용되는 기능 사용 가능 (설정 → 프로필 + 상당 계정 선택) *이용 전식 기능은 사용자의 형태,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쇼트트랙 황대현, 린샤오쥔 격파…월드컵 1차 대회 1,500M 우승

박지원은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금메달…김길리는 은메달 2개

한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 황대현(강원 도청)이 옛 국가대표 동료 린샤오쥔(중국·한국명 임효준)과 펼친 4년 만의 국제 대회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뒀다.

황대현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66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테인 데스먼(벨기에·2분23초789)을 0.123초 차로 따돌렸다.

결승에 함께 진출한 김건우(스포츠토토)는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휴식을 선언하며 2022-2023시즌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황대현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복귀 첫 대회부터 '금빛 질주'를 펼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이번 대회 남자 1,500m 종목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 대표팀 시절 악연으로 얹힌 황대현과 린샤오쥔의 맞대결이었다. 둘은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2019년 훈련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우승한 뒤 주먹을 불끈 친 황대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린샤오쥔은 중국으로 귀화했고, 4년 만에 국제 대회에서 황대현과 만나게 됐다.

황대현과 린샤오쥔은 이날 남자 1,500m 준결승에서 마침내 맞대결을 펼쳤다.

준결승에서 린샤오쥔이 레이스 초반 선두권으로 나서는 사이 황대현은 후미에 서 기회를 노렸다.

황대현은 3바퀴를 남기고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서며 린샤오쥔을 3위로 밀어 낸 뒤 곧바로 스피드를 끌어올려 선두까지 올라섰다.

힘을 충분히 비축한 황대현은 여유 있게 간격을 벌리며 1위로 결승선을 지났고, 린샤오쥔은 마지막 코너에서 러셀 펠릭스(캐나다)에게 2위 자리까지 내주고 3위로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린샤오쥔은 암도적인 레이스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황대현은 1년 만의 월드컵 시리즈 복귀 무대를 금메달로 장식했다.

여자 1,500m 결승에서는 김길리(성남시청)가 2분28초01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하니 데스먼(벨기에·2분27초863)에게 0.149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는 지난해 남자부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1분24초903)이 캐나다의 스티븐 뒤타야(1분24초916)를 0.013초 차로 힘겹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이소연(스포츠토토)과 서휘민(고려대)은 나란히 2~3위를 차지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이소연과 서휘민은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폴란드의 카밀라 스토크로프스카에게 부딪히며 넘어져 안타깝게 금메달 사양에 실패했다.

훈성계주 결승에서 김길리, 김건우, 서이라(화성시청), 심설희(서울시청)가 흐름을 맞춘 우리나라 형가리에서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산도르 류·사오양 류 형제가 이끈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길리는 여자 1,500m에 이어 훈성계주까지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건 가운데 린샤오쥔은 중국 훈성 계주팀에서 준결승까지 뛰었지만 결승 레이스에는 빠졌다.

/ 최준용 기자



선수들과 인사하는 콜린 벨 감독

여자축구, 26일 시작 아시아 예선서 사상 첫 올림픽 진출 도전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6일부터 중국 푸젠성 사면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한다.

2차 예선은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 한국은 중국(15위), 태국(46위), 북한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A조는 호주(11위), 대만(38위), 필리핀(44위), 이란(63위)이 모였고 C조는 일본(8위), 베트남(34위), 우즈베키스탄(50위), 인도(61위)다.

각 조 1위가 4강에 직행하고, 조 2위 국가 가운데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이후 4강 토너먼트에서 이긴 2개 나라가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는 한국 여자축구는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힘겨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이외에는 국제 경기를 치르지 않아 세계 랭킹이 없는 북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조는 호주, C조는 일본이 비교적 손쉽게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조는 한국, 중국, 북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6일 태국과 1차전을 치르는 한국은 이어 29일 북한, 11월 1일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로서는 올해에만 세 번째 도전이다.

8월 FIFA 여자 월드컵에 사상 첫 8강을 목표로 호기롭게 나선 벨호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아시안게임이다'를 / 박현수 기자

남자 핸드볼, 인도 대파하고 파리 올림픽 아시아예선 3연승



남자 핸드볼 대표팀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인도를 대파하고 3연승을 달렸다.

홀란두 프레이티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

전에서 인도에 46-19로 크게 이겼다.

3연승을 달린 한국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1시 아시아 강호 카타르를 상대로 4차전을 치른다.

카타르도 예선에서 전승 행진을 펼치고 있어 이 경기에서 조별리그 1위가 결

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날 전반전을 28-9로 크게 앞선 채 마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케 했다.

11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예선은 2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조별리그의 각 조 상위 2개 팀이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위는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2위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세계예선 출전권을 확보한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카타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로는 한 번도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 한영수 기자

15세 소년, 다음 달 PGA투어 출전…2014년 이후 최연소

15세 소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15세 소년 올리버 베츠차트가 1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베뮤다 포트로열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베뮤다 웹파인십에 출전한다고 21일 보도했다.

베츠차트가 다음 달 이 대회에 출전하면 2014년 관렌랑(당시 14세)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PGA 투어에서 경기한 선수가 된다. 베츠차트는 작년에도 베뮤다 웹파인십 지역 예선에 출전했다가 한 타 차로 고배를 머셨지만 재수 끝에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베츠차트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 한해 내 목표였다. 믿기지 않고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거래소



지구탄소다이어트 K-Energy 플랫폼, 전력거래소

우리가 살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탄소를 빼면 더 건강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365일 24시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탄소제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가 "K-Energy"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존에도 유아 험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